



## （제7회 ‘과학기술, 미디어를 만나다’）

# 첨단 미디어, 전통 사회를 해체한다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인간과 예술, 사회, 종교, 고령화 사회, 여성을 만난 과학기술이 이번에는 미디어를 만났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새로 보는 과학기술 포럼이 열렸다.

‘과학기술, 미디어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주요 관심사는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첨단 미디어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과 함께 과연 이 첨단 미디어가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냐는 미래 가능성을 진단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첨단 미디어가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 인간과 인간을 서로 충돌하게 하고 있는 요인인 ‘소통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과학, 철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 폭넓은 의견들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 디지털 컨버전스가 미디어 진화 촉진

기조강연을 맡은 SK텔레콤 윤송이 상무(인터넷 사업본부 CI본부장)는 “최근 기업들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과거 TV를 즐겨 보던 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TV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상무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디지털

컨버전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러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이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에 묶여 융합되면서 TV와 PC의 경계가 무너지고, 최근에는 TV와 PC, 그리고 휴대폰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기업 마케팅과 PC, बैं킹과 휴대폰, 각종 서비스와 뉴 미디어들이 새로 결합하면서

종래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컨버전스 전략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데 애플사의 ‘아이팟(iPod)’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애플사의 ‘아이팟’은 터치식 휠을 사용, 수천 곡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로 CD, PC, MP3, AAC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폭넓은 기능을 갖고 있다. 윤 상무는 “이 ‘아이팟’이 출시되자 매출이 폭증하면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애플사 매출의 5%를 기록하는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를 본 뉴욕의 한 유력지는 ‘아이팟이 뉴욕시를 점령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게재했고, EMI, 유니버설 등 주요 음반사들은 ‘아이팟’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또 “최근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월드’ 역시 제작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파워’를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1998년 형용준 씨가 만든 가족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1999년에는 클럽 서비스 중심의 사이트로, 2001년에는 개인을 위한 미니 홈페이지로, 2004년 이후에는 사진, 음악 등을 수록할 수 있는 미니 홈페이지로 발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PC, 휴대폰에 쓰이는 네이트온 메신저, 휴대폰화 등과 연동돼 막강한 미디어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들이 결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최근 들어서는 이질적인 분야를 융합시키며 그 범위를 급속히 확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게임과 경영, 마케팅과 बैं킹, TV와 휴대폰의 영역과 같은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면서 신개념 미디어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



윤상이 SK텔레콤 상무

들간의 경쟁관계도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가 종이 신문의 경쟁자가 된지는 오래 전의 일이다. 얼마 전에는 TV가 포털 사이트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다.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모 TV방송을 통해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 방영되자 이 드라마 방영 시간대에 국내 인기 포털의 접속건수가 평상시 접속건수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윤 상무는 “이 같은 현상은 포털업체의 경쟁사가 다른 포털업체가 아니라 TV 방송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진화에는 사용자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상무는 “최근 개인 홈페이지에 있는 ‘방명록’이 단순한 인사말을 위한 장소에서 동창회, 교회 모임, 친구들의 점심 약속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의 변화를 과학 기술과 함께 사용자들이 함께 주도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 저녁 시간에는 대다수가 TV를 보고 있었으나 지금 20~30대는 절반 이상이 PC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면서 TV와 PC를 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의 정치 출현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첨단 미디어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화해나갈 경우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 한양대 윤영민 교수(정보사회학)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통신과 미디어 발전이 계속된다면 통신과 미디어의 기술적 기반인 BcN(광대역 통합망)은 성숙 단계에 도달해 있을 것이며,

이동전화 보급으로 인한 유선전화의 위기, 통신과 방송 융합을 둘러싼 갈등, 인터넷으로 인한 종이신문의 위기 등의 이야기는 이미 옛날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공간에서는 물론이고 1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초당 100MB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닌 모든 IP 기반의 무선통신은 TV 안테나는 물론이고 케이블과 전화선 등 집 안에 있는 잡다한 통신설비들을 깨끗이 치워버릴 것이다. “또 방송사와 통신사의 갈등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의

새로 보는 과학기술 포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IP TV는 벌써 몇 세대의 진화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며, 모두 Volp(인터넷 전화)로 전환돼 유무선 구분이 없어져 버린지 오래된 전화는 수 세대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국어사전에서 '전화'라는 단어는 고어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통신은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을 넘어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간의 소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미디어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인간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교수는 또 마크 포스터의 말을 인용,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해 현재의 방송모델의 '제1 미디어' 시대가 끝나고 쌍방향적이며 탈중심적인 '제2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대 1의 대면을 넘어서 1대 다수, 나아가 다수 대 다수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며, 기존에 존재하던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제2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흔들리고, 전통적인 정치학적인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정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윤 교수는 "네트워크 사회"란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로 인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조직, 인간과 데이터베이스 등이 촘촘히, 그리

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사회를 말하는데 현재의 세계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해 있는 중"이라고 보았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홍콩 등 시간대가 다른 나라에서 주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24시간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주식 투자자가 드물지 않고, 전세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와 같은 컴퓨터 게임을 같이 즐기며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치가들은 급작스럽게 다가온 '전자민주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 뉴 미디어를 손에 쥔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대표를 통해 전달하려 하지 않고, 직접 발표하면서 대표를 통한 대의정치보다는 발표를 통한 참여정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19세기에 등장한 관료조직의 시대는 새로 등장한 전자정부의 출현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일은 뉴미디어 진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권력 관계가 대부분 해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식의 획득이 보편화하면서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 공무원과 민원인, 기업과 소비자 등 사회의 온갖 영역에서 권력 관계가 재편되거나 심지어는 전복될 수 있다"며 "탱크와 총칼로도, 대중적 투쟁으로도 성취할 수 없었던 변혁이 미디어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론적 지식을 창출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넘치는 정보 속에서 의미를 캐낼 수 있는 능력, 사회적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가 부여하는 권력이 주어질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뉴미디어 확산으로 예



행사장 전경



상되는 또 하나의 현상을 '이동'이라고 보았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인간의 생각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흐름이 빨라지고 각종 경계가 해체되면서 유행, 혁신, 개혁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의 해체, 다문화주의, 탈중심사회와 같은 사회체제를 바꾸어놓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치적 소통방식의 변화는 사회의 편제된 권력, 심리적 지배자로서의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마저 바꾸어놓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만일 뉴미디어가 것처럼 심층적 수준의 권력 관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권력의 해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이 같은 변화 예측에 대해 과학 기술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최선책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미디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정연교 경희대 철학과 교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첨단 미디어 사회변혁을 주도하면서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 인간과 인간간의 끝없는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요인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희대 정연교 교수(철학)는 "전기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주의, 전문가 체제, 대의 민주주의 체제, 관료적 교육 시스템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언의 말을 인용, "맥루언의 이론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각종 사회체제가 와해된 그 빈자리를 무엇이 메워나갈지에 대해서는 다소 막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 문화로 인해 인류가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감수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책은 심리치료에 관한 책인데, 스콧 펙의 저서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무려 8년간이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고, 화 다스리기와 느리게 사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실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지덕체를 고루 연마하고 시서학을 고루 함양하기를 권면했으나 지금의 과도하게 지식에 편중된 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자신의 인격을 함양시켜 나가는 일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언어 상황을 예로 들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3천 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 문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문자 활용이 가능한 언어는 고작 78개뿐이며,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언어까지 포함해도 수천, 수만 개의 언어 중 문어라고 불릴 자격을 갖춘 언어는 106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의 화학자는 동물학 방면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에 대한 지식이 더욱 박약해진 것 같고, 영시 작법상의 운율의 원리에 전혀 무지한 것 같다. 고대사에 대한 지식은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기술자나 수학자나 고전학자의 경우도 화학자의 경우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의 전문화가 야기하는 폐단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성의 지도력은 약해지고 지도적 입장에 있는 지식인들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상황의 어느 일면만을 보고 좀처럼 양면을 보지 못한다. 요컨대 사회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훌륭하게 기능하고 진보해 가지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지니지 못한다. 세부적인 것에 편중된 진보는 통합의 기능이 미약한 데서 오는 갖가지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전문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말을 인용, "전문화가 인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대신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성향, 즉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데 그것은 인간간의 '우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개인주의는 자아와 타자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일정 분야에서 능력 신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삭감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의 차이를 삭감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개인을 분리하며, 직위나 성과를 어느 정도 재수 탓으로 여기는 것이며 '제비뽑기'는 능력이 기준이 되는 곳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았다. ㉮